은행

Analyst 김현수 | 금융
02-3779-3969, hyunsoo.kim@sangsanginib.com

3Q25 Preview: 실적은 양호, 우려는 완화

Overweight 유지

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더 많은 리포트 찾아보기

과징금 우려 및 기술주 강세로 하반기 은행주 주가흐름은 부진했던 모습

하반기 은행주 주가는 과징금 우려와 기술주 강세가 겹치며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상반기 내내, 7월 증시활성화 정책 모멘텀까지 타고 급등했던 흐름은 8월 이후 둔화됐다. 연초 대비 코스피가 50.5%p 상승한 데 비해 KRX 은행업 지수는 44.2%p 상승에 그치며 상대 수익률이 뒤집혔다. 교육세율 인상, 조 단위 과징금 가능성, 공적자금 출연 확대 등 주주환원 여력을 압박할 변수들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가운데, 반도체 업종 전망 개선으로 외국인·기관의 순환매도 뚜렷했다. 하반기 들어 은행주는 4.2%p 오르는 데 그친 반면 반도체 지수는 39.8%p 급등해, 같은 기간 코스피(+17.5%p)를 크게 상회했다. 해외 자금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저PBR 은행을 담던 관성이 약해지고, 기술주로 비중이 이동한 영향이 컸다고 판단한다.

3분기 실적 전망은 양호, 하나금융·JB금융은 추가 자사주매입 발표 예상

3분기 합산 지배순이익은 5.7조원으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관련 염가매수차익 약 4,500억원을 제외하면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일부 외화환산손이 발생하겠지만, 2분기 외화환산익을 고려하면 연간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회성 요인으로는 BNK금융의 삼정기업 관련 대손충당금 환입 약 400억원 정도가 확인될 뿐 다른 변수는 크지 않다. 수신금리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신금리 하락폭은 제한돼 업종 방어력이 유지되며, NIM은 약 1bp 하락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주환원 측면에선 하나금융과 JB금융지주이 추가 계획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금융은 약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이 예상되며, JB금융도 약 300억원 추가 매입을 통해 연간 주주환원율 44%를 상회할 전망이다.

과징금 및 공적자금 출연 관련 우려는 완화되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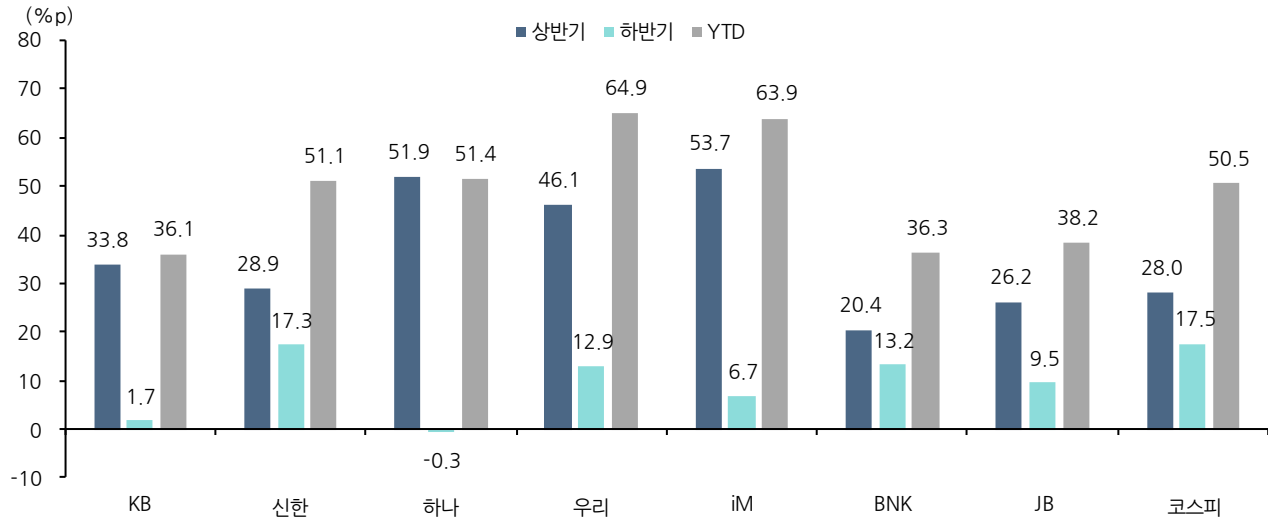
과징금과 출연금에 대한 우려는 초기 전망보다 완화되는 흐름이다. 단기적으로는 ELS·국고채 등 과징금의 확정 시점과 규모가 핵심 변수지만, 운영 리스크 반영기간을 요건 충족 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정비로 RWA에 장기간 남는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민성장펀드 참여는 다년 분산 집행이며, 주식 RW 250% 원칙과 정책펀드 특례(요건 충족 시 RW 100%) 명확화가 병행돼 중기 이후에는 출자·여신을 고려해도 RWA 개선 여지가 넓어진다. 결국 은행별 주주환원은 ① 과징금 인식 타이밍, ② 성장펀드의 출자·여신 믹스, ③ 가계→기업 리밸런싱 속도, ④ RW 개편 반영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 출연만으로 주주환원 축소를 단정하기보다, 연차별 집행과 RWA 절감 효과를 함께 보아야 한다.

과징금 우려 및 기술주 강세로 하반기 주가흐름은 부진했던 모습

하반기 은행주는 과징금 우려와 기술주 강세가 겹치며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상반기 급등(7월 증시활성화 모멘텀 포함)은 8월부터 둔화됐고, 연초 대비 코스피가 +50.5%p인 반면 KRX 은행업 지수는 +44.2%p에 그쳤다. 교육세율 인상, 조 단위 과징금 우려, 공적자금 출연 논의가 주주환원 우려를 확대했고, 반도체 전망 개선에 외국인·기관이 성장주로 회전했다. 특히 저PBR 은행 비중을 유지하던 해외 자금의 관성도 약해지며 기술주로의 비중 이동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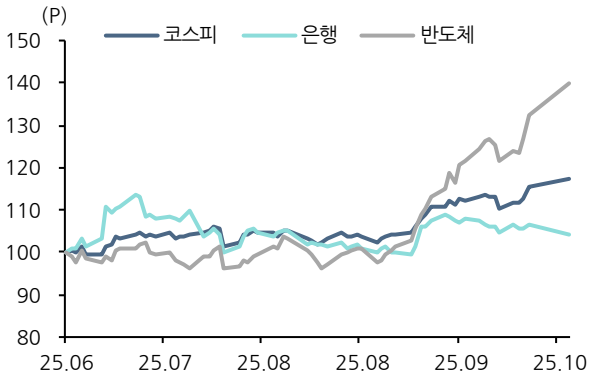
종목별로 주가흐름은 다소 갈렸다. 신한지주(+17.3%)와 우리금융(+12.9%), iM금융(+6.7%)은 업종 평균(+4.2%)을 웃돌았고, KB금융(+1.7%)은 박스권, 하나금융(-0.3%)은 소폭 역행했다. 지방금융은 BNK(+13.2%)·JB(+9.5%)가 반등했지만, 1개월 성과는 각각 -9.2%, -9.6%로 단기 조정이 컸다. 3개월(91일) 모멘텀도 신한(+3.9%)을 빼면 대체로 음(-)으로, 업종 피로감과 외부 이슈의 영향을 보여준다. YTD로는 우리(+64.9%)·iM(+63.9%)·신한(+51.1%)·하나(+51.4%)가 여전히 강하지만, 최근 1~3개월은 성장주로의 자금 이동이 뚜렷했다.

그림 1. 은행지주사별 주가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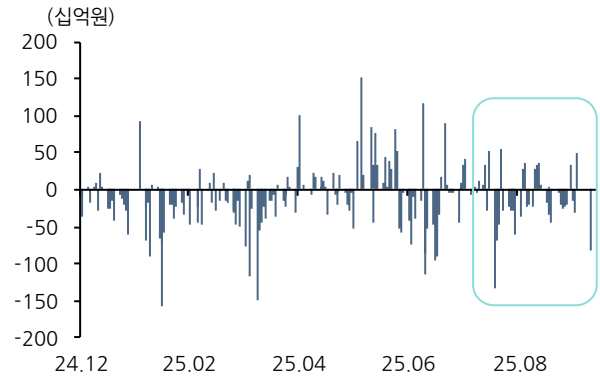
주: 상반기 주가수익률은 지난해 말일 종가 기준, 하반기 주가수익률은 2025년 6월 30일 종가 기준, 현재주가는 2025년 10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추산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그림 2. 코스피, 반도체, 은행업종 주가지수 추이



주: 2025년 6월 30일 종가를 100으로 한 지수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그림 3. 은행업종 외국인 순매수 추이



자료: Quantiwise, 상상인증권

3분기 실적은 양호할 전망, 하나금융·JB금융은 추가 자사주매입 발표 예상

3분기 업종 실적은 양호할 전망이다. 커버리지 합산 지배순이익은 5.7조원으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염가매수차익(약 4,500억원)을 제외하면 컨센서스에 대체로 부합한다. 원/달러 상승으로 일부 외화환산손이 발생하겠지만 2분기 외화환산익을 고려하면 연간 영향은 제한적이다. 외화익스포져가 미미한 지방금융지주와 iM금융지주를 제외하면, 환율 민감도는 신한지주→우리금융→KB금융→하나금융 순으로 높다. 유효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CET1 하락 압력은 은행지주별로 1~3bp, 교육세율 인상은 약 5bp 수준으로 예상된다.

일회성요인으로는 BNK금융의 삼정기업 충당금 환입(약 400억원)과 우리금융의 염가매수차익(약 4,500억원) 정도로 제한적이다.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 편입 효과로 CET1 하락 우려가 있었지만 낮은 대출 성장과 일회성 이익으로 상당 부분 상쇄될 전망이며, 3분기 원화대출 증가율이 낮았던 만큼 CET1이 소폭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업종 전반에선 여신금리 하락 속도보다 수신금리 하락 폭이 더 커지는 구조가 이어져 방어력이 유지되고, 업종 평균 NIM은 약 1bp 하락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주환원 측면에선 하나금융과 JB금융이 각각 약 1,500억 원, 300억 원의 추가 자사주 매입이 유력하며 연간 주주환원율은 각각 약 44.6%, 44.4% 이상으로 예상된다.

은행별로 보면 KB금융은 NIM -2bp, 원화대출 +0.5%가 전망된다. 신한지주는 카드사 희망퇴직 비용 약 400억 원이 반영되며, 가계대출 중심으로 +2.3% 성장, NIM -1bp가 예상된다(6.27 대책 직전 주담대 발생 효과). 하나금융은 NIM 보합, 대출 +2% 내외, 환율 상승에 따른 평가손 약 500억원 가능성이 있다. 우리금융은 염가매수차익과 함께 자산신탁 책준형 충당금 약 500억원이 예상되며, 대출 +0.5%, NIM +1bp, CET1은 2분기에 이어 소폭 상승이 유력하다.

BNK금융은 양행 합산 원화대출성장 +1% 내외, 삼정기업 충당금 환입 약 400억원이 이어지며, 은행 합산 NIM은 -5bp 정도 조정이 예상된다. iM금융지주는 NIM -1bp, 대출 +1%(기업대출 중심), 비이자이익은 경상 수준(약 1,000억원)이나 전분기 대비 둔화가 예상된다. 판관비는 하반기 계절적으로 늘고 대출 성장 영향으로 CET1이 소폭 낮아질 수 있다. JB금융은 양행 합산 원화대출 성장률이 1% 내외로 추정되고 NIM은 전분기 대비 -2bp가 예상되며, 상반기 고성장 했던만큼 하반기는 완만한 성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표 1. 유효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1%p 인상 영향

(단위: 십억원)	KB 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iM 금융	BNK 금융	JB 금융
이연법인세자산	167.6	199.3	138.3	53.7	245.9	0.0	37.0
이연법인세부채	1,750.2	646.4	450.8	550.2	39.8	110.6	25.1
2025F 세전이익	7,907.6	6,711.0	5,485.6	4,657.1	625.1	1,063.9	989.2
예상 추가 법인세비용	94.9	71.6	58.0	51.5	4.2	11.7	9.8
CET1 비율 영향	-3bp	-2bp	-2bp	-2bp	-1bp	-2bp	-3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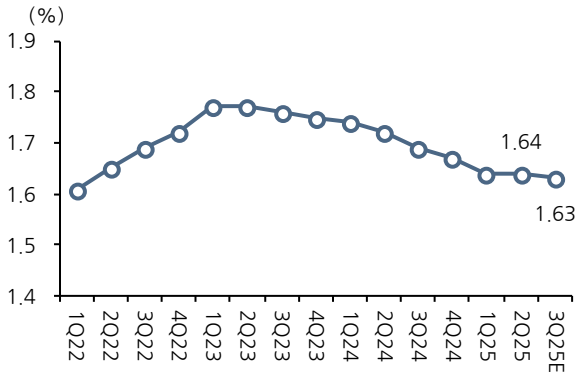
주: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 RWA는 2025년 2분기 말 기준. DTL > DTA일 시 **법인세 비용 증가**, DTL < DTA일 시 **법인세 비용 감소**
자료: 상상인증권

표 2. 교육세율 0.5% → 1.0% 인상 영향

(단위: 십억원)	KB 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iM 금융	BNK 금융	JB 금융
2025F 이자수익	29,857.4	28,278.5	22,851.7	21,650.7	3,895.9	6,621.7	3,588.9
2025F 수수료수익	5,943.3	4,506.2	3,902.8	2,903.3	328.4	396.1	192.8
2025F 영업수익	35,800.7	32,784.7	26,754.5	24,554.0	4,224.3	7,017.7	3,781.7
예상 추가 교육세비용	179.0	163.9	133.8	122.8	21.1	35.1	18.9
CET1 비율 영향	-5bp	-5bp	-5bp	-5bp	-5bp	-5bp	-5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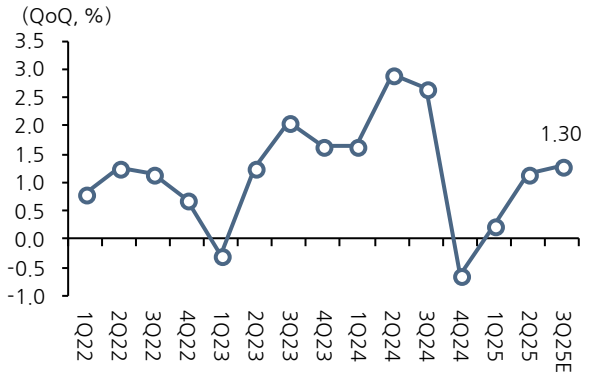
주: 2025F 영업수익은 당사 추정치. 보수적으로 추가 교육세 추정. 교육세율 인상분 가산금리 전가 가능성도 열려있음
자료: 상상인증권

그림 4. 국내 일반은행 NIM 추이 및 전망



주: 국내 일반은행 전체 기준 추이 및 추정치
자료: 은행통계정보시스템, 상상인증권

그림 5. 은행업종 커버리지 합산 원화대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상상인증권

표 3. 은행지주사별 3Q25 추정 실적

(단위: 십억원)	KB 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iM 금융	BNK 금융	JB 금융
순이자이익	3,199	2,717	2,212	2,286	415	721	519
순수수료이익	1,112	648	665	496	60	72	19
기타비이자이익	131	327	32	(127)	81	(12)	53
총영업수익	4,442	3,692	2,909	2,655	556	781	591
판관비	1,762	1,440	1,148	1,035	282	347	207
순영업이익	2,680	2,252	1,760	1,620	275	434	384
대손충당금	451	410	322	483	104	154	109
경상이익	2,229	1,842	1,438	1,137	171	280	275
영업외손익	11	88	50	414	1	51	(1)
세전이익	2,240	1,930	1,488	1,551	171	331	274
법인세비용	675	483	381	465	38	77	67
총당기순이익	1,565	1,447	1,108	1,086	134	255	207
비지배지분	(21)	28	8	25	4	10	6
지배순이익	1,587	1,420	1,099	1,060	129	244	201

자료: 상상인증권

Valuation Table

(단위: 원, 십억원, 배, %)

구 분		KB 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iM 금융	BNK 금융	JB 금융
투자의견		매수	매수	매수	매수	매수	매수	매수
목표주가 (12 개월)		148,000	90,000	118,000	30,000	20,000	18,000	30,000
목표 PBR		0.99	0.80	0.77	0.62	0.53	0.51	0.98
상승여력		32.6	27.8	38.3	19.3	48.6	27.7	32.7
현재주가		111,600	70,400	85,300	25,150	13,460	14,100	22,600
PBR	2024A	0.60	0.46	0.40	0.34	0.23	0.32	0.57
PBR	2025F	0.76	0.65	0.57	0.54	0.37	0.41	0.76
PBR	2026F	0.73	0.61	0.55	0.51	0.35	0.40	0.72
PER	2024A	6.8	6.4	4.6	3.8	6.4	4.6	4.7
PER	2025F	8.1	7.7	6.3	5.6	4.8	5.7	6.1
PER	2026F	7.4	7.0	6.1	5.0	4.4	5.8	5.6
ROE	2024A	8.7	8.1	9.1	9.4	3.6	7.0	12.8
ROE	2025F	9.4	8.6	9.3	9.7	7.8	7.3	12.7
ROE	2026F	9.7	8.9	9.1	10.4	8.2	6.9	13.0
지배순이익	2024A	5,078	4,450	3,739	3,086	215	728	678
지배순이익	2025F	5,750	4,953	4,073	3,388	477	799	731
지배순이익	2026F	6,276	5,390	4,190	3,838	521	792	788
총주주환원율	2024A	39.7	40.2	37.8	33.3	38.5	33.0	32.4
총주주환원율	2025F	53.2	47.5	44.6	34.6	34.7	38.5	44.4
총주주환원율	2026F	58.0	52.0	50.9	44.0	41.9	45.0	45.0
총주주환원수익률	2024A	6.2	7.5	8.7	9.0	6.0	7.3	6.9
총주주환원수익률	2025F	7.2	6.9	7.7	6.3	7.6	6.9	7.5
총주주환원수익률	2026F	8.6	8.2	9.0	9.1	10.0	8.0	8.2
RWA	2024A	345,981	341,379	279,404	235,100	43,108	76,937	37,314
RWA	2025F	364,937	350,255	287,786	239,167	44,725	79,246	40,278
RWA	2026F	386,001	364,476	299,471	252,635	46,541	82,463	43,098
RoRWA	2024A	1.47	1.30	1.34	1.31	0.50	0.95	1.82
RoRWA	2025F	1.58	1.41	1.42	1.42	1.07	1.01	1.82
RoRWA	2026F	1.63	1.48	1.40	1.52	1.12	0.96	1.83
PBR/RoRWA	2024A	0.41	0.35	0.30	0.26	0.46	0.33	0.32
PBR/RoRWA	2025F	0.48	0.46	0.41	0.38	0.35	0.41	0.42
PBR/RoRWA	2026F	0.45	0.41	0.39	0.33	0.31	0.41	0.40

자료: 상상인증권

주: 현재주가는 2025년 10월 13일 종가 기준

예대마진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6.27대책 직전 주담대 효과로 가계대출은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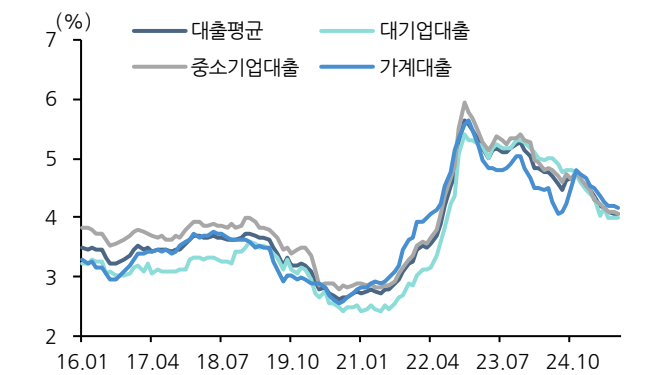
8월 신규 취급 기준으로 은행 대출금리는 4.06%로 보합이었고, 저축성 수신금리는 2.49%로 더 내려가 스프레드는 1.57%p까지 벌어졌다. 잔액 기준으로도 수신 2.08%, 대출 4.26%로 격차 2.18%p가 유지됐다. 해석은 단순하다. 대출금리의 하방이 이어지지만 수신금리가 더 빨리 내려 조달 부담이 줄었고, 예대마진은 큰 변동 없이 안정 구간을 유지했다는 뜻이다.

유동성 흐름도 그와 맞물린다. 7월에 빠졌던 은행 수신이 8월에 +32.9조원으로 크게 반등했고, 수시입출식은 지방재정 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24.2조원에서 +18.1조원으로 돌아섰다. 정기예금도 +12.2조원 늘었다. 반면 MMF로의 유입 속도는 +23.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둔화했다. 은행으로 자금이 되돌아오면서 단기상품 쏠림은 완화되고, 예대율 관리와 조달비용 안정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 통화지표도 바닥을 받친다. 7월 M2(평잔) 증가율이 전년 대비 7%대 초반을 유지해 신용 팽창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는 큰 폭의 개선이라기보다 속도 조절에 가깝다. 금리·유동성은 완화적이지만 체감 경기는 신중하다는 판단이다.

대출은 가계와 기업이 동시에 순증을 보인 가운데, 가계는 주택담보대출이 흐름을 이끌었다. 2분기 가계신용이 +24.6조원 늘었고, 그 중 가계대출이 +23.1조원을 차지했다. 예금은행에서는 주담대 증가폭 확대와 기타대출의 증가 전환이 겹치며 총증가 규모가 커졌다(1분기 +8.4조→2분기 +19.3조). 월중으로 보면 8월 은행 가계대출이 +4.1조원 증가했고, 그 중 주담대가 +3.9조원, 기타대출이 +0.3조원이었다. 금리가 내려왔어도 과거 저점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상환부담이 단숨에 가벼워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거래 정상화와 정책·보금자리 성격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주담대 중심의 순증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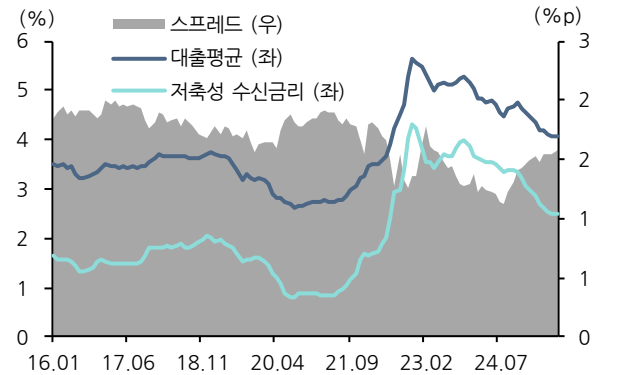
기업은 차환과 운전자금 수요가 핵심이다. 8월 은행 기업대출은 +8.4조원 증가했고, 중소기업 +4.5조원, 대기업 +3.8조원으로 모두 플러스였다. 시장금리가 상승 중이지만 채권시장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국면이 아닌 만큼, 기업은 은행과 시장을 병행해 만기 차환과 재고·매출 대응 자금을 확보하는 흐름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종합하면 3분기 총대출은 가계는 주담대 중심, 기업은 운전자금·차환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NIM은 은행별로 소폭 등락을 동반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안정 구간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6. 유형별 대출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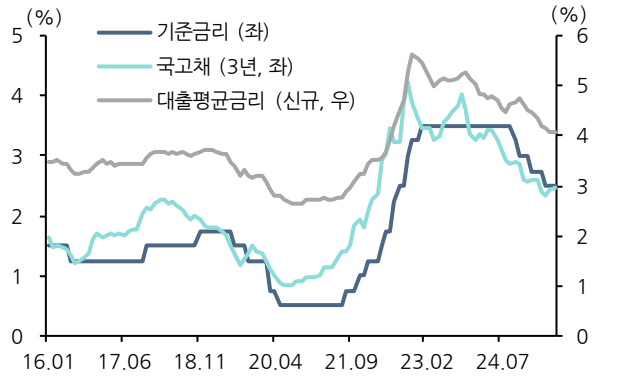
주: 신규취급기준
자료: 한국은행, 상상인증권

그림 7. 예대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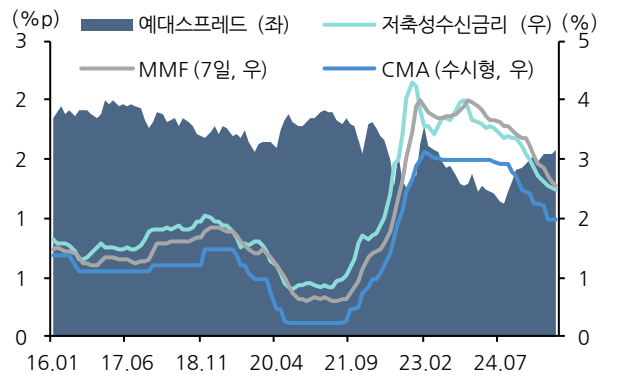
주: 신규취급기준
자료: 한국은행, 상상인증권

그림 8. 시장금리 및 대출평균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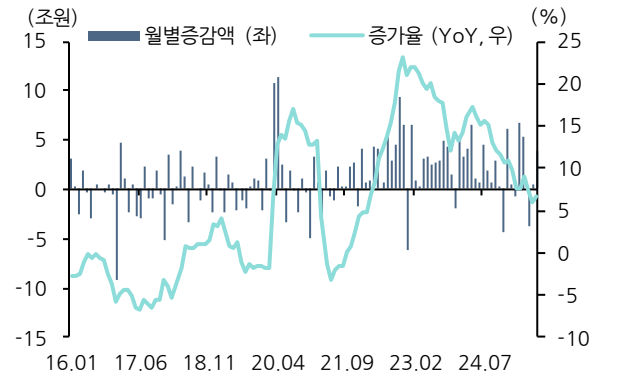
주: 대출평균금리는 신규취급 기준
자료: 한국은행, 상상인증권

그림 9. MMF (7일), CMA (수시형) 및 단기자금 예대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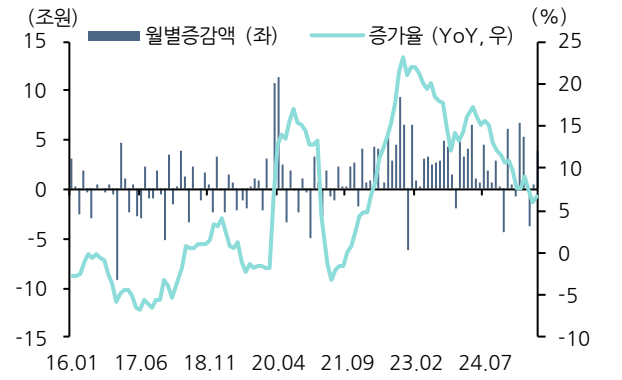
주: 저축성수신금리는 신규취급기준
자료: 한국은행, 상상인증권

그림 10. 대기업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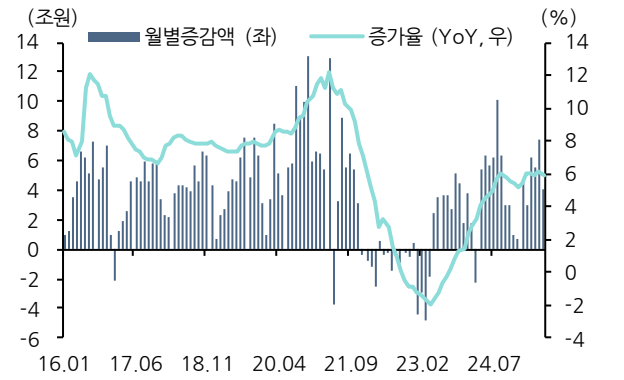
주: 예금은행 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상상인증권

그림 11. 중소기업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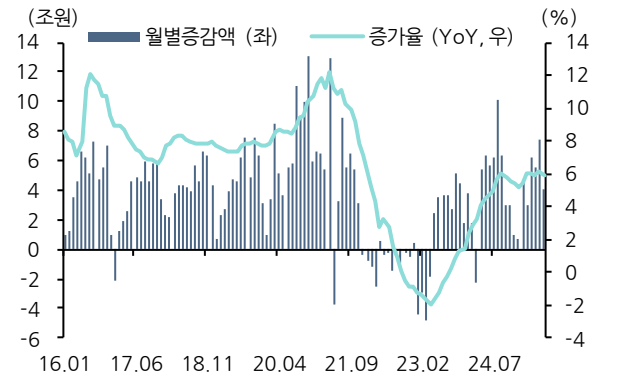
주: 예금은행 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상상인증권

그림 12. 가계대출 추이



주: 예금은행 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상상인증권

그림 13. 주택담보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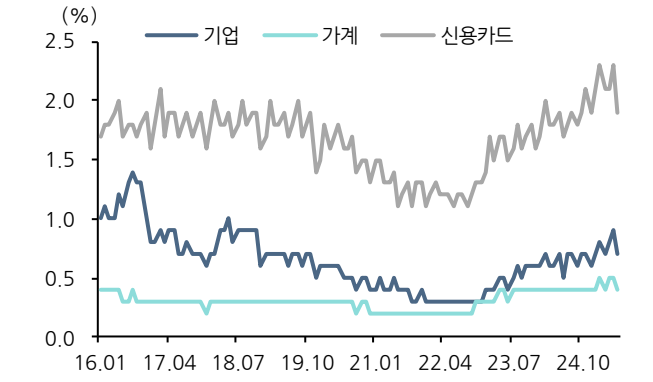
주: 예금은행 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상상인증권

연체율은 다소 높아졌지만 자산건전성은 견조

건전성은 낮은 수준에서 변동성이 이어졌다. 7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은 0.57%로 전월 대비 0.05%p 상승했지만, 월중 신규연체율은 0.11% 수준으로 안정적이었다. 신규 연체 자체는 2조원대 후반으로 전월과 비슷했으나, 상·매각 등 정리 규모가 5조원대 중반에서 1조원대 중반으로 크게 줄면서 분모·분자 효과로 연체율이 기계적으로 높아진 영향이 컸다. 6월 말 부실채권(NPL) 비율은 0.59%로 전분기와 유사했고, 잔액은 약 16.6조원(기업 13조원대, 가계 3조원대) 수준에서 머물렀다. 다만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60%대 중반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낮아졌다. 충당금은 여전히 높지만 상반기 고점 대비 완만한 구간이다. 분기 초 연체율이 소폭 올라 보수적 상각·매각 또는 추가 적립 유인이 다시 커졌지만, 분기 말에는 통상 정리 물량이 확대되며 지표가 되돌아오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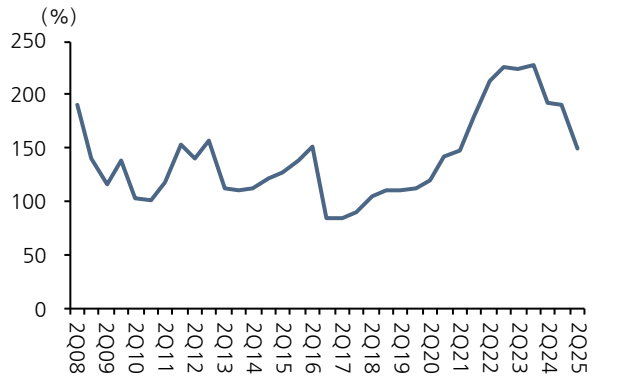
PF는 상반기 고비를 넘기며 관리 국면이 이어졌다. 6월 말 PF 익스포저가 186조원대 중반으로 전분기 대비 4조원가량 줄었고, PF대출 연체율도 4.39%로 0.1%p 남짓 하락했다.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와 비중이 동반 감소하며 재구조화와 사업성 선별의 효과가 통계에 드러나고 있다. 은행별로 PF 잔존 위험과 커버리지 격차가 큰 만큼, 비용의 높낮이는 차별화되겠으나 업권 평균선에서는 "높지만 점차 정상화" 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림 14. 은행업종 여신종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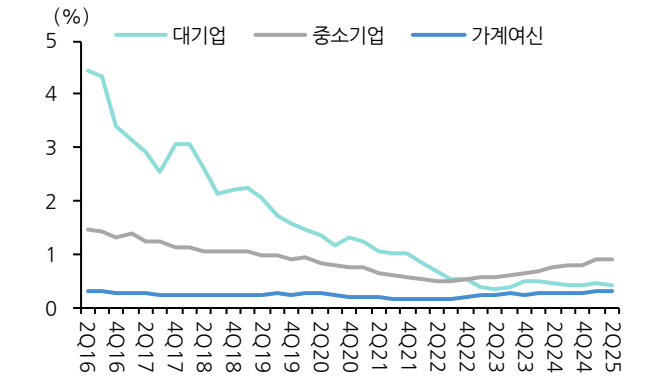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상상인증권

그림 15. 커버리지 은행 합산 대손충당금적립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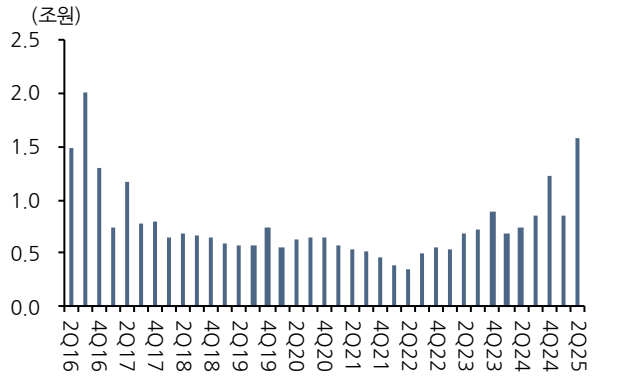
자료: FISIS, 상상인증권

그림 16. 국내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자료: 은행연합회, 상상인증권

그림 17. 국내은행 분기별 대손상각비 추이



주: 기중 대손상각비 기준
자료: 은행연합회, 상상인증권

표 4.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현황('25.09.25)

구 분	전체	신기준 평가대상			C·D 소계	비중
		평가대상	유의 (C)	부실우려 (D)		
'23 년 말	231.1				9.3	4.0
'24.06 월말(1 차평가)	216.5	33.7	7.4	13.5	21.0	9.7
'24.09 월말(2 차평가)	210.4	210.4	8.2	14.7	22.9	10.9
'24.12 월말(3 차평가)	202.3	202.3	5.9	13.3	19.2	9.5
'25.03 월말(4 차평가)	190.8	190.8	6.6	15.4	21.9	11.5
'25.06 월말(5 차평가)	186.6	186.6	6.2	14.6	20.8	11.1

주: 1) C·D소계는 구기준의 PF 대출 '악화우려'에 해당하는 여신잔액+토담대 고정이하여신액+채무보증 고정이하여신액
2) 1차평가 C·D소계에서 평가대상 외(182.8조원) 사업장에 대한 구기준 적용 유의·부실우려 여신(2.3조원) 합산시 23.3조원
자료: 금융위원회, 상상인증권

표 5. 정리·재구조화 실적(누적) 관련 실적표('25.09.25)

구 분	정리·재구조화 실적(당기 증가분)						
	'24.09 말	'24.12 말		'25.03 말		'25.06 말	
정리	1.5	4.4	(2.9)	6.5	(2.1)	8.7	(2.2)
재구조화	1.6	2.1	(0.5)	2.6	(0.5)	4.0	(1.4)
합계	3.1	6.5	(3.4)	9.1	(2.6)	12.7	(3.6)

자료: 금융위원회, 상상인증권

과징금 우려는 완화되는 흐름

과징금 우려와 자본비율은 **'단기 하락과 중기 회복'**이라는 시간차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9월 제도 정비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판매금액'**으로 명확해졌고, **자율배상과 내부통제 개선 등 감경 사유가 구체화**됐다. 헤드라인으로 보이는 금액은 클 수 있지만,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실제 부과액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신호다. 여기에 10월 초 ELS 관련 1심 판결에서 은행이 승소한 사례가 나오며 운영리스크의 상단도 일부 누그러졌다. 다만 단기 CET1에는 과징금의 절대 규모와 비용 인식 시점이 핵심이어서, 과징금이 확정되면 보수적 자본 운용이 불가피하다.

제도 측면에서는 과징금처럼 성격이 일회성인 운영리스크를 얼마나 오래 자본에 반영할지에 대한 기준과 배제 요건이 정리되고 있다. 일정 기간 반영 뒤 요건(금감원장의 승인)을 충족하면 과징금을 운영리스크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처럼 장기간 자본을 묶어두는 구조에서 기간 관리형으로 바뀌는 흐름이 예상된다. 내년 안으로 과징금이 확정된다는 가정을 할 시, 단기적으로는 CET1 비율에 하방 압력이 생기고, 이후 배제 승인과 내부 개선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

그림 18. '25.09.22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시점 2025. 9. 22.(월) 조간 배포 2025. 9. 18.(금)

▸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9.22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시 기준금액을 상품유형별로 구체화

√ 금소법상 특성을 반영하여 과징금 산정에 관한 별도 기준 마련

1. 개요

9.22일(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입법예고 기간 : [시행령] '25.9.22일~11.3일 / [감독규정] '25.9.22일~10.10일

자료: 금융위원회, 상상인증권

그림 19. 과징금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명시

[① 상품유형별 '수입등' 산정원칙 명시 : 시행령 및 감독규정]

금소법상 과징금은 '수입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이를 산정하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 위반행위 억제 등 과징금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적극 고려하여 상품유형별 '수입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대출성 상품에는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투자성 상품에는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험성 상품에는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금소법 제57조제1항)
**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얻는 모든 형태의 금전등(금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자료: 금융위원회, 상상인증권

그림 20. 과징금 부과 기준율 완화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과기준율 하한을 1%로 설정**(현행 검사·제재규정의 하한은 50%)하고,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세부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규율했다.

*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2.7%) 대비 하한(0.03%)은 약 1% 수준

[중대성 평가]

중대성	산정점수
매우 중대	2.3이상
중대	1.6이상 2.3미만
중대성 약함	1.6미만

[현행] 검사·제재규정

부과기준율
100%
75%
50%

⇨

[신설] 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부과기준율
65% 이상 100% 이하
30% 이상 65% 미만
1% 이상 30% 미만

※ 0.1점당 5%p 가감
(단, 1.0~1.1점은 4%p 차이)

자료: 금융위원회, 상상인증권

그림 21. 과징금 감면 비율 '75%'까지 확대

아울러, 금융사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수습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을 과징금 감경 사유에 추가했다. 금융사고 이후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노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50%** (또는 배상금액)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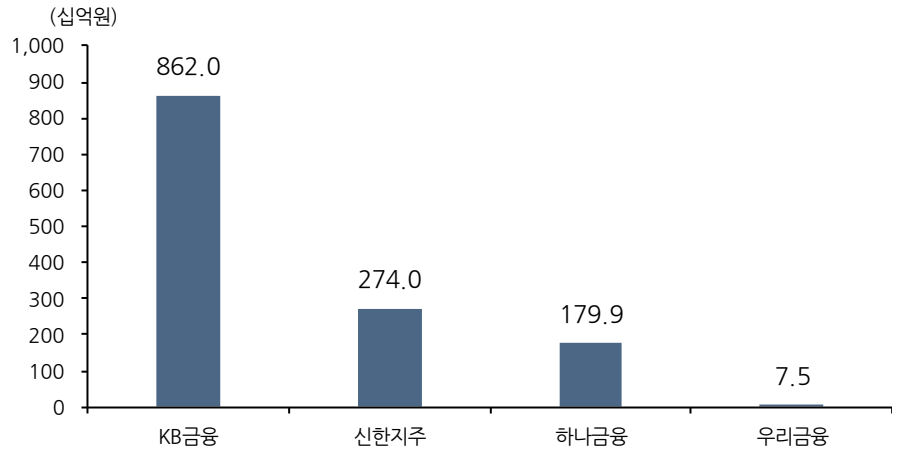
다만, 이와 같은 다양한 감경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 [참고] 검사·제재규정상 기본과징금 감경한도는 50%

자료: 금융위원회, 상상인증권

선제적으로 홍콩 H지수 사적화해를 진행했기 때문에, 과징금 감면비율 높게 적용될 가능성 ↑

그림 22. 홍콩 H지수 ELS 배상 관련 비용



자료: 언론보도, 상상인증권

공적자금 출연 우려 또한 완화

생산적 금융은 가계 담보에서 기업 투자로 돈의 흐름을 옮기려는 정책 패키지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려 신규 취급분의 자본 소요를 높이고 가계 쏠림을 완화하는 한편, 은행 보유 주식은 국제 기준에 맞춰 원칙 250%(일부 예외 400%)로 조정하고, 정책목적 펀드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시 RW 100%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 비수도권 기업대출에 유리한 예대율 인센티브를 더해, 은행이 펀드 출자와 기업대출을 병행하더라도 RWA 부담을 과거보다 관리 가능하게 했다. 설계의 목표는 "가계→기업"으로의 자금 이동을 촉진하고, 주식·펀드 투자와 기업대출의 RWA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데 있다. 다만 중소기업 대출의 확실한 확대를 위해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이 핵심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보완이 기대된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원(정책금융 75조원 + 민간·국민·금융권 75조원) 규모로 설계돼 AI·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과 밸류체인 전반에 자금을 공급한다. 은행의 역할은 가계담보 중심에서 기업투자·직접금융으로 넓히는 방향이다. 민간 금융권 중에선 우리금융이 가장 먼저 10조원 참여 의사를 밝혀(총 80조원 계획 중 생산적 금융 73조원: 펀드 10조 + 자체 투자 7조 + 융자 56조) 초기 앵커 역할을 자처했으며, 다른 대형 금융지주도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 몫(75조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지주사별 집행은 일시에 큰 현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연차별로 출자(자본성)와 융자(신용공급)를 나눠 배치한다. 따라서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연도별 출자 규모, 동시에 줄이는 고가중치 자산의 리밸런싱 폭, 주식·정책펀드 RW 합리화 효과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같은 1조원이라도 융자 비중이 높고, 출자가 정책 특례·공동투자 구조를 타며, 고가중치 자산 축소를 병행할수록 CET1 비율에 대한 부담은 작아진다.

그림 23. '25.09.13 생산적 금융 추진 방향

(정책금융 전환)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을 선도한다. 특히, 오는 2호 안건을 통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다.

(금융회사 전환)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 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상상인증권

그림 24. 과징금 감면 비율 '**75%**'까지 확대

첫째,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한다. 해외 RW 규율 사례와 은행의 자본부담 효과 등을 감안하여 **내부등급법*상 주담대 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 은행별 손실경험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부도율, 손실률 등으로 위험가중치를 자체 산출

둘째,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RW 기준도 개선**한다. BIS 기준은 비상장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RW 250%, 예외적으로 RW 400%를 부과하는 것에 반해, 국내 기준은 원칙적으로 400%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비해 보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BIS 기준에 맞추어 **원칙적으로 RW 250%**를 적용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벤처기업 주식, 이하 동일)에 한해 RW 400%를 적용한다. **단기** 매매 목적 여부 기준은 EU 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 미만 보유 예정인 비상장 주식에 대해 적용**하며, **벤처캐피탈** 기준은 영국 사례* 및 국내 벤처생태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 업력 기준으로 5년 미만 기업에 대해 RW 400%, 5년 이상 기업에 대해 RW 250%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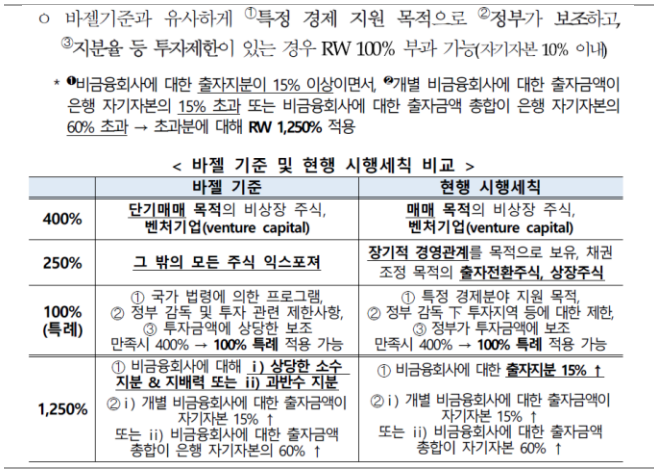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상상인증권

표 6. 주식 RW 관련 현행 기준과 개선방안

위험가중치(RW)	현 행	개선방안
250%	은행이 기업과 장기적 경영관계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채권 조정 목적의 출자전환주식, 상장주식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
400%	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 벤처캐피탈이나 자본이득을 위한 투기적 비상장 주식거래	단기매매(보유 3 년 미만) 목적의 비상장주식, 벤처캐피탈(예: 업력 5 년 미만)이나 자본이득을 위한 투기적 비상장 주식거래
위험가중치 개선 영향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은 평균 약 24bp 상승, 지주의 경우 평균 약 19bp 상승 주식 RW 합리화에 따라 RWA 31.6 조원 감소 → 투자여력 확대 (기업대출 평균 RW(43%)로 환산시 73.5 조원 규모)	

자료: 금융위원회, 상상인증권

그림 25. 정책 펀드 위험가중치(RW) 조정 근거



○ 바젤기준과 유사하게 ①특정 경제 지원 목적으로 ②정부가 보조하고, ③지분율 등 투자제한이 있는 경우 RW 100% 부과 가능(자기자본 10%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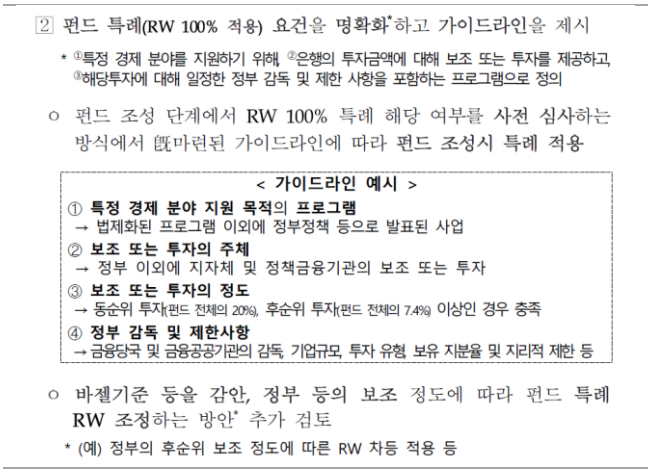
* ❶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15% 이상이면서, ❷개별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5% 초과 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총합이 은행 자기자본의 60% 초과 → 초과분에 대해 **RW 1,250%** 적용

< 바젤 기준 및 현행 시행세칙 비교 >

	바젤 기준	현행 시행세칙
400%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 **벤처기업(venture capital)**	**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 **벤처기업(venture capital)**
250%	**그 밖의 모든 주식 익스포져**	**장기적 경영관계**를 목적으로 보유, 채권 조정 목적의 **출자전환주식, 상장주식**
100% (특례)	① 국가 법령에 의한 프로그램, ② 정부 감독 및 투자 관련 제한사항, ③ 투자금액에 상당한 보조 만족시 400% → **100% 특례** 적용 가능	①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 ② 정부 감독 下 투자지역 등에 대한 제한, ③ 정부가 투자금액에 보조 만족시 400% → **100% 특례** 적용 가능
1,250%	① 비금융회사에 대해 **i) 상당한 소수 지분 & 지배력 또는 ii) 과반수 지분** ②i) 개별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자기자본 15% ↑ 또는 ii)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총합이 은행 자기자본의 60% ↑	①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15% ↑** ②i) 개별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자기자본 15% ↑ 또는 ii)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총합이 자기자본 60% ↑

자료: 금융위원회, 상상인증권

그림 26. 정책펀드 출연금에 대한 위험가중치 가이드라인 예시



2 펀드 특례(RW 100% 적용) 요건을 명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

* ①특정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②은행의 투자금액에 대해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하고, ③해당투자에 대해 일정한 정부 감독 및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

○ 펀드 조성 단계에서 RW 100% 특례 해당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방식에서 既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펀드 조성시 특례 적용

< 가이드라인 예시 >

① **특정 경제 분야 지원 목적**의 **프로그램**
→ 법제화된 프로그램 이외에 정부정책 등으로 발표된 사업

② **보조 또는 투자의 주체**
→ 정부 이외에 지자체 및 정책금융기관의 보조 또는 투자

③ **보조 또는 투자의 정도**
→ 동순위 투자(펀드 전체의 20%), 후순위 투자(펀드 전체의 7.4%) 이상인 경우 충족

④ **정부 감독 및 제한사항**
→ 금융당국 및 금융공공기관의 감독, 기업규모, 투자 유형, 보유 지분율 및 지리적 제한 등

○ 바젤기준 등을 감안, 정부 등의 보조 정도에 따라 펀드 특례 RW 조정하는 방안 추가 검토

* (예) 정부의 후순위 보조 정도에 따른 RW 차등 적용 등

자료: 금융위원회, 상상인증권

표 7.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축소(6.27 발표)

정책	현행	개선안
가계대출 총량관리	금융권별 자율관리	하반기부터 총량목표 50% 수준 축소 (정책대출 제외)
주담대 LTV	수도권 2 주택자 규제지역: 3~7%	수도권·규제지역 2 주택자 LTV 0% (추가 주택 구입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수도권 1~2 억원, 지방 제한 없음	수도권·규제지역 최대 1 억원, 지방 동일하게 자율적 설정
주담대 만기	30~40 년	수도권규제지역 30 년 이내 제한
전세대출 제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금지	실거주 목적 아닌 경우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1~2 배	연소득 이내로 축소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없음	최대 6 억원
은행 자율관리 조치	은행만 시행	전 금융권으로 확대
주담대 RW 상향 (자본비율합리화정책, 25.09.13)	**주담대 RW 하한 現 15%**	**25%로 상향 → 20%로 상향**
	전체 잔액 소급적용 → 신규 건에만 적용 검토 각 은행지주별 RWA 영향은 1 조원 내외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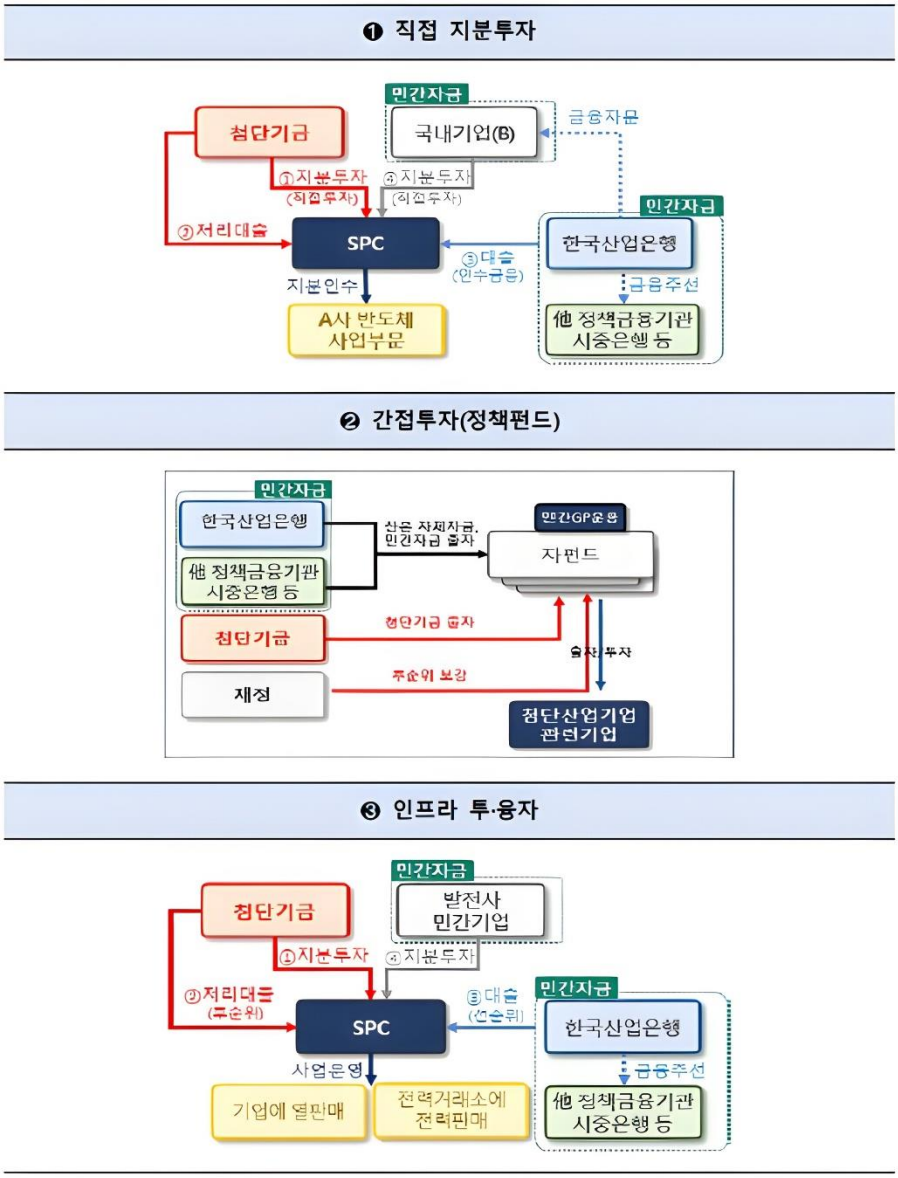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상상인증권

출연금에 대한 주주환원 영향은 출자 믹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주환원 관련 우려의 경우 결국 단기적으로 ELS·국고채 등 과징금의 확정 시점과 규모가 핵심 변수다. 다만 운영리스크 반영기간을 요건 충족 시 배제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흐름이 병행되고 있어, 과징금이 RWA에 오래 남는 구조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성장펀드 참여는 대부분 다년 분산 집행이며, 규제 합리화(주식 RW 250% 원칙, 정책펀드 특례 명확화)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중기 이후에는 출자·여신을 감내하면서도 RWA가 개선될 여지가 크다. 결과적으로 은행별 주주환원은 ① 과징금 인식 시점, ② 성장펀드의 출자·여신 믹스, ③ 가계→기업 리밸런싱 속도, ④ RW 개편 반영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정책 출자 등의 요인을 '주주환원 축소'로 단정하기보다는, 연차별 집행과 RWA 절감 효과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성장펀드의 출자 및 여신의 비율에 따라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

그림 27. 국민성장펀드 자금지원 방식별 개요도



자료: 금융위원회, 상상인증권

여전히 시중은행지주보다 지방은행지주가 더 매력적

요약하면 3분기 은행업은 2분기 대비 금리·유동성 환경이 완화적이었고, 가계는 주담대, 기업은 운전자금·차환 중심으로 총대출이 완만한 성장을 이어갔다. 연체와 부실은 낮은 수준에서 다소 변동성을 보였고, PF는 관리 국면 속 완만한 정상화가 진행 중이다. 결국 과징금은 단기 CET1 비율에 부담이지만 감경·배제 제도와 판결 변수로 중기 회복 가능성이 살아 있고, 생산적 금융 정책은 RWA 구조 조정과 예대율 인센티브를 통해 CET1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3분기 실적은 충당금이 "높지만 정점 통과 후 정상화"의 결을 보이고, 마진은 안정, 대출은 완만한 플러스, 자본은 시간차를 두고 회복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과징금·출연금 등 심리적 불확실성이 컸던 가운데 정부의 자본비율 규제 합리화가 추진되면서 주주환원 축소 우려는 눈에 띄게 누그러졌다. 다만 비용부담의 본질은 남아 있다. 과징금의 자본 반영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규모에 따라 CET1 하락은 불가피하고, 출연금도 체급이 큰 시중은행일수록 부담이 크다. 여기에 시중은행은 지방금융지주 대비 외화 익스포저가 높아 환율 민감도가 크다는 점도 현재의 원/달러 상승 국면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시중은행보다는 관련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iM금융지주와 지방금융지주의 매력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

하나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의 추가 주주환원까지 발표되면, 4분기에는 개별 대형 이벤트가 많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생산적 금융 후속 조치, 자본비율 합리화 이행, 과징금 관련 보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3분기 실적 발표는 10/28(화) 15시 신한지주를 시작으로 같은 날 15시 하나금융지주, 16시 JB금융지주, 10/29(수) 16시 우리금융지주, 10/30(목) 14시 iM금융지주와 16시 KB금융지주, 10/31(금) 10시 BNK금융지주 순으로 예정돼 있다.

그림 28. 커버리지 은행지주사별 3분기 실적발표 예정일시

구분	날짜	시간
KB금융	10/30 (목)	16:00
신한지주	10/28 (화)	14:00
하나금융지주	10/28 (화)	15:00
우리금융지주	10/29 (수)	16:00
iM금융지주	10/30 (목)	14:00
BNK금융지주	10/31 (금)	10:00
JB금융지주	10/28 (화)	16:00

자료: 상상인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김현수)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구분	투자의견 기준 및 기간	투자등급	투자의견 비율	비고	구분	투자의견 기준 및 기간	투자등급	투자의견 비율	비고
산업 (Industry)	**투자등급 3단계** 향후 12개월 시장대비 상대수익률	Overweight (비중확대)	84.6%	시가총액 대비 비중확대	기업 (Company)	**투자등급 3단계** 향후 12개월 절대수익률	BUY	93.5%	절대수익률 15% 초과
		Neutral (중립)	15.4%	시가총액 수준 유지			HOLD	6.5%	절대수익률 +15%~ -15%
		Underweight (비중축소)	0.0%	시가총액 대비 비중축소			SELL	0.0%	절대수익률 -15% 초과
			합계 100%					합계 100%	